<10.16873/tkl.2019. 83. 12>
한국문학논총 제83집(2019. 12) 197~245쪽

1930년대 후기 신문 短評의 비평사적 가치*

이 해 년**

차 례

1. 연구목적 및 단평의 범주
  1) 신문 단평란 연구목적
  2) 短評의 명칭과 범주
2. 단평의 비평성
  1) 비평의 범위와 短評
  2) 비평의 본질과 단평의 비평성(criticality)
3. 단평의 비평사적 意義
  1) 비평으로서의 본질적 가치
  2) 비평으로서의 문학 외적 가치
  3) 비평으로서의 기능적 가치
4. 결론

국문초록

단평은 1935~1940년 무렵까지, 4개 신문의 학예면과 문예종합지(신동아, 문학, 人文評論, 西海公論, 批判, 청색지 등)에 실렸는데, 『동아일보』의 「정찰기」,「사백자평론」, 『조선일보』의 「탐보대」, 「소형논단」, 『조선중앙일보』의 「필탄」, 「미네르바-의 소총」, 『매일신보』의 「납량대」란 등 20개 이상의 단평란이 있었다. 편당 400~800자 정도의 一回 단편물이 대

* 이 논문은 2019년도 동서대학교 “Dongseo Cluster Project”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DSU-2019007).
** 동서대학교 영상문학과 교수

부분이고, 2~3회 연재물도 많은데, 500여 편이 넘는다. 단평란의 필진은 저널리스트들로, 당시 문단에 영향력 있던 작가, 시인, 평론가들이었으므로, 文藝時評이 대부분이고 작품론, 작가론, 비평가론, 문학이론, 詩作法 등 전문적 비평이 많다. 단평은 당시의 文藝時評의 성격을 내용상으로 계승한 것이며, 일본 신문단평을 형식상으로 수용하여 변모한 비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평에는 時事性을 뛰어넘는 문학성(비평성)과 문학사적 가치가 내재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단평이 가지는 우리 비평사적 가치와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추출할 수 있었다.

1.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단평은 작품론, 작가론, 문학이론, 등의 측면에서 정확한 평가와 이론 전개를 보였던 가치 있는 비평이다.

2. 문학 外的인 측면에서 볼 때, 단평은 우리 批評史上 존재가치가 큰 비평형식이다. 또 흐름을 개괄하면 우리 문예비평史로 정립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며, 現代文學史의 흐름 파악에도 기여하리라 본다. 문학작품의 바른 이해와 평가를 위해서 문학裏面事나 文壇事에 관한 자료가 꼭 필요하다고 할 때, 단평은 문학연구를 위한 보조적 자료로서 가치가 큰 비평이다. 또, 날카로운 비평성을 구사한 몇몇 전문적인 단평 필자를 배출한 비평이다.

3. 비평의 기능면에서 볼 때, 단평도 독자와 전문지식인 간의 거리를 좁히고 융화시킨 의의와 당시 위기의 문단에서 훌륭한 지침 역할을 수행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한 결과, 단평은, 짧은 길이에서 오는 선입견으로 지금까지는 도외시되어 왔고 본격비평에 비해 낮은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긴 시간동안 많은 양의 단평작품을 산출한 비평이고, 문학사적 의의와 가치가 충분한 비평장르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과연 단평은 비평으로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문학이었던가를 따져 한국근대문학비평사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추후

단평의 비평문학으로서의 본질적 가치를 밝히는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주제어 : '단평(短評)', 비평성, 비평사적 가치, 문예비평, 문예시평(文藝時評), 익명비평(匿名批評), 신문 단평란, 한국근대문학비평사, 대중독자, 전문 필자, 문학이론

1. 연구목적 및 단평의 범주

1) 신문 단평란 연구목적

단평은 1935년 무렵, 당시 4개 신문(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선중앙일보, 매일신보)의 학예면, 또는 당시의 문예종합지(신동아, 문학, 人文評論, 西海公論, 批判, 청색지 등)에 실리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1940년 무렵까지 계속되었고, 그 분량은 편당 400자 내지 800자 정도로서 500여 편이 넘는다.

단평란의 필진은 주로 당시의 저널리스트들이 중심이 되었다. 이 저널리스트들은 다시 문단에 영향력 있던 작가, 시인, 평론가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단평에는 단순히 時事性에 머물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문학성(비평성)과 문학사적 가치가 내재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면의 연구업적은 거의 없다.

문학의 본질적 가치를 알아본다는 의미에서 과연 단평은 비평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문학이었던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한국근대문학을 이끌었던 비평문학으로서의 단평의 비평사적 가치에 초점을 두고 1930년대 후기 신문 단평란을 연구하고자 한다. 앞선 연구[1]에서 고찰한 결과, 단평은, 짧은 길이에서 오는

선입견으로 지금까지는 도외시되어 왔고 본격비평에 비해 낮은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긴 시간동안 많은 양의 단평작품을 산출한 비평이고, 문학사적 의의와 가치가 충분한 비평장르임을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단평은 비평으로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문학이었던가를 따져 한국근대문학비평사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러할 때에만 식민지 상황하의 우리 문학에 대한 바른 이해와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추후 단평의 비평문학으로서의 본질적 가치를 밝히는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2) 短評의 명칭과 범주

본 연구는 한국근대문학비평사 연구의 일환으로서, 단평[2]에 관한 연구로 집약하였다.

단평은 종래 '익명비평, 촌철평, 단평, 꼬싶, 촌평, 단평칼럼' 등으로 불리워져 왔으나, 本考에서는 이런 여러 명칭을 포괄하는 명칭으로 '短評'을 택한다. 단평이란 명칭은 형태상 길이, 내용의 간결함, 거기에서 오는 효과의 명확성, 수사법상의 압축적 묘사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맨 처음 '단평'이라 칭한 사람은 윤고종[3]이며, 寸鐵殺人이라는 문구처

---

1) 졸고, 「1930년대 후기 신문 短評란의 유행과 문헌적 양상」, 『한국문학논총』 제60집, 한국문학회, 2012, 285-321쪽.

2) 여기서 '단평'이라 함은 장르로서 단정된 명칭은 아니나 잠정적으로 이렇게 칭하기로 한다. 단평에 속할 수 있는 고려시대의 詩話, 詩評은 본 考의 연구 대상인 1930년대 후기 신문 단평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다른 특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考의 논의에서 제외시킨다. 또 당시 신문의 단평 형태는 동아일보에서만 해도 <동아만평> <橫說竪說>(1면) <휴지통>(2면) 등 여러 개의 단평란을 찾아볼 수 있지만, 문학과는 무관하므로 제외시킨다.

3) 윤고종, 「문예시평(2) '단평의 존재의의'- 시대는 간명을 요구한다」, 『조선일보』, 1935. 3. 9.

럼 數行의 簡潔한 문장을 가진 '短評'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고 했다. 이 때 단평이란 명칭은 '독자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짧은 말' '名句'라는 점에서 '촌철비평'[4]의 의미를 포함하며 '짧다'는 의미에서 '寸評'[5] 또는 '콩비평'[6] 이란 명칭을 포함한다. '콩비평'은 일본에서 단평의 別名으로 쓰였던 명칭인데 '콩'은 '豆'로 '짧다, 작다'의 뜻이기 때문이다.

한편 '匿名批評[7]'이란 명칭은 일본에서는 비평의 한 장르로 고정되어 나타나며, 우리나라에서는 '익명을 사용한 비평류'를 대략 지칭하는 말로 쓰여 왔다.

이러한 경우 '익명비평'이란 명칭은 다음 몇 가지 이유에서 단평의 명칭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익명 현상은 단지 당시의 단평에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익명은 단평 이전 또는 이후에도 우리 문단 전체에 걸쳐 사용된 것이며, 號나 筆名[8]을 사용하는 한문학적 전통과도 연결된다.

둘째, 익명은 단지 통렬한 비평정신을 위해 사용하였고, 그것은 방법상의 한 특성에 불과하므로 그 외의 나머지 특성을 포괄할 수 없다.

셋째, 단평 가운데 實名을 사용한 것도 많은데, 그것들을 포함할 수 없게 된다.

또 '寸鐵殺人'이란 명칭은 정순정[9]이 처음 사용하였는데, 압축된 事象의 간략한 표현수법으로서 警句的 修辭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수사법상의 특징과 관련지어 칭한 것 같다.

---

4)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서울: 일지사, 1980, 508-513쪽.
5) 복진, 「대체 누구냐」, 『조선중앙일보』, 「일평」란, 1935. 9. 27.
6) 윤고종, 앞의 글.
7) 노천명, 「익명비평 유행에 대하여」, 『조선중앙일보』, 「일평」란, 1935. 10. 16.
동유자, 「匿名비평의 위신」, 『매일신보』, 「전초병」란, 1940. 9. 27.
8) 단평 유행 이전인 1921년 5월의 「비평과 시대적 양심」,(『我聲』 제12호)에도 '乙素天'이란 명칭이 보이고, 1924년 10월 「닛체의 警句」,(『영대』」제3호)에는 '魔境', 1924.10.6의 「향락문예와 전투문예」(『조선일보』)에는 '彗星生'이란 筆名이 각각 보이는 것이다. 이런 필명들은 단평란에 사용했던 匿名류와 잘 구별되지 않는다.
9) 정순정, 「寸鐵評 비판-효능성의 二方面」, 『조선중앙일보』, 1935. 10. 15-16.

그렇다면 촌철평론이라는 말은 수사법상의 한 특징에서 온 명칭에 불과하므로 단평이라는 비평의 명칭으로는 부족한 감이 있다.

김윤식[10]은 '촌철비평'이라 칭하였으면서도 계속 '단평', '단평형식' 등으로 계속 혼란되게 사용하였으며, 단평은 익명비평과는 달리 '촌철비평의 한 형태'라고 하면서, 촌철비평의 속성을 가진 모든 비평 중의 한 형태로서 1935년 이후의 '短評'을 포함시켰는데, 이때 '촌철비평'은 1935년 이후의 短評만을 지칭하는 명칭이 아니므로 적당하지 않은 것 같다.

위에서 살핀 바에 의하면 이 시기의 독특한 비평장르의 명칭으로는 短評이 가장 적합하겠다. 이 명칭은 형태상의 짧은 길이와 내용의 간결함, 거기에서 오는 효과의 명확성, 수사법상의 압축적 묘사까지도 포괄하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短評'이라 함은 1935~1940년 무렵 신문 학예면과 잡지를 중심으로 유행하던 한국근대문학비평사의 독특한 비평을 의미하게 된다.

2. 단평의 비평성

1) 비평의 범위와 短評

단평의 형태는 특이한 모습을 보이면서 유행했던 점에서 '비평장르'로서 인정이 가능한 것인가?

비평은 文學장르(시・소설・희곡)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문학과 非문학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비평은 보통 문학 가운데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서 인정가능하다. 『신고문학개론』에서도 비평의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 보면서, 비평의 職能을 ① 작품을 해명

10) 김윤식, 앞의 책, 515쪽.

② 작가의 趣味를 바로 잡고 지도하는 것 ③ 비평가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라[11] 하고 있다.

정태용도 '비평이란 作品을 매개로 한 독자와 작자의 정신적 교류요, 독자에게는 創作上의 助言도 하는 것'[12] 이라고 정의하고 나아가 비평의 성격을 밝히는 자리에서

> 「… 어떤 것은 作品의 순전한 鑑賞報告에 그치기도 하고, 어떤 것은 論爭的이며 缺點만 指摘하는 것도 있다. 또 어떤 것은 作品에 대한 印象과 그것의 理由를 詳細히 分析解明하며, 어떤 것은 作品의 思想, 人物의 特性, 現實의 槪括, 表現의 技術등을 詳細히 科學的으로 分析 整理하고 原理 原則을 캐내어 立法하며 아울러 그 根源까지를 밝히려 한다.
>
> 批評은 또 批評을 批評할 수 있는 것이 特色. ……」라고 하여[13] '비평의 비평 … 논쟁적인 것' 까지도 비평에 속할 근거를 마련하고 短評이 비평에 속한다고 단정하였다.
>
> 즉 비평의 범위를 ① 작품론 · 작가론 · 문학사 ② 詩論 · 소설론 · 연극론 · 비평론 · 문학사론 ③ 종합적 문학론, 문예학 ④ 新聞의 단평란의 가십을 비롯하여 新刊評 · 時評 · 月評 · 年間 槪評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태용의 분류로는 '티보테'의 분류[14]에서 온 것이다.
>
> 티보테의 견해에서도 역시 短評이 속할 장르상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티보테는 '비평의 직능'을 ① 自然生的 비평 ② 직업적 비평 ③ 예술가적 비평으로[15] 나누고, 自然生的 비평의 근원을 '쌀롱'에 두는데, 이

---

11) 박목월 外 4인 共著, 『신고문학개론』, 송원문화사, 1974, 186쪽.

12) 정태용, 문학평론, 세계문학강좌 권1, 『문학개론』, 어문각, 1962, 206쪽.

13) 정태용, 앞의 글, 216쪽, '비평의 역할'

14) 비평의 범위에서 정태용과 티보테의 견해를 빌어 온 것은 정태용이 비교적 단평의 유행연대와 가깝게 활동한 비평가이고, 티보테의 견해가 당시 문인들 사이에 많이 받아들여진 것을 감안할 때, 당시 문인들의 입장에서 비평에 대한 의식을 보다 더 잘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이다.

15) A. Thibaudat, Physiologie de la Critique(1930) (石川 用 譯, 春秋社), pp. 25-27.

○ 직업적 비평: 비평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 교수들의 비평, 과거의 비평, 역사의 고전을 대상, 문학사가 된다. 기성의 여러 가지 양식의 본질과 한계 및 규칙을 질서화.

○ 예술가적 비평: 作家들의 비평, 창작이나 고전독서를 통한 直觀, 공감에 의하

'쌀롱비평'이 근대 저널리즘의 발달과 함께 '時評'으로 되었다고 하였다.

「… 그러나 상뜨·부브는 좋은 會話가 있는 곳에 좋은 批評이 있다 하여, 批評의 發生을 싸롱에 두고 있다. 이 싸롱批評이 近代의 저널리즘 發達과 함께 時評으로 되었고, 티보데는 이것을 素朴한 사람들의 自然生的 批評이라 불렀다. 이 批評은 讀者들의 批評이며 그것의 代辯이다. 讀者는 作家의 裁判官인 것이다. ……」[16]

티보데가 自然生的 批評을, 알반대중, 문학 애호가들의 비평으로 싸롱에서 발생하였고, 저널리스트가 이 비평을 대표한 時事性을 띤 오늘의 비평 즉 時評의 성격이 강한 비평이라고 분류한데 의하면, 일반대중을 위한 비평, 저널리스트가 쓴 비평, 시사성을 띤 오늘의 비평으로서 文藝時評的인 성격을 띤 短評은 자연생적 비평에 속한다.

「 …자연생적 비평 素朴한 사람들, 卽 一般大衆 속에 있는 文學 愛好家 들의 비평이다. 그들은 보고 느낀대로 지껄인다. 그러므로 자연생적 비평은 會話에서 싸롱에서 생긴 것이다. 이것을 대표하는 것은 저널리스트다. 저널리스트는 대중의 엘리트로서 그들의 趣味, 良識을 洞察하고 그 立場 비평을 한다. 그것은 時事性을 가진 오늘의 비평이며, 작품을 吟味 鑑賞하여 作品周圍에 항상 새롭고 新鮮한 숨결과 雰圍氣를 만든다. 吟味란 '현재의 快樂을 느끼는 것이며, 현재에 사는 것이며, 현재의 瞬間에 깨닫는 것이다.' … 」[17]

또 일반적으로 비평을 解釋비평, 判斷비평, 鑑賞비평으로 분류할[18] 때 '短評'은 감상비평에 속한다.[19] 감상비평도 작품의 가치, 조건, 특성을 해명하여야 하므로, 주관적인 해석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분석, 判斷

여 하는 미학과 문학에 대한 발언체계나 질서 없는 자기설명, 하나의 창조이며 美學이 된다.

16) A. Thibaudat, 앞의 책, 같은 곳.
17) 정태용, 앞의 글, 209쪽.
18) A. Thibaudat, 앞의 책.
19) 정태용, 앞의 글, 210쪽.

이 따른다. 그러므로 新刊評이나 月評 時評에는 약간의 판단성을 가진 감상적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20] 短評이 내용상 時評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때 단평도 감상비평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정태용이 발표 소개문, 추천사, 심사후기까지도 비평의 범위에 넣은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당시의 문단 실정상 '批評'과 '評論'의 구별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안다면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해진다.

평론, 비평의 구분 불가능 상태에 대해서는 당시 '雙頭馬車'가 쓴 동아일보 「탁목조」란의 「論評·理論·批評」(38. 3. 13)을 보면 알 수 있다.

雙頭馬車가 먼저 '論評·理論·批評- 이 말은 잘 구별되지 않는다'[21] 라고 전제한 점과 '평론은 이론과도 달라 문단의 제반 時事를 일정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종횡으로 논평하는 글이다. 따라서 평론의 특징은 짧고 자유롭고 명쾌하며, 時事的임을 요하며, 평론가란 문단이나 창작계의 저널리스트라 할 수 있다. …'라고 한 점은 평론으로서의 '短評'이 가지는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다. 또 비평도 평론이 되고 잘 구별되지 않는다는 언급을 첨가하여 逆으로 추정할 때, 時事的이며 짧고, 자유로우며, 저널리스트가 쓴 短評은, 형식면에서 자유로운 평론에 속하며, 나아가 비평영역에까지도 속할 수 있는 것이다.

쌍두마차의 所論처럼 평론에 속한 '時評'과 전문적 '批評'을 구별하지 않던 당시 문단상황은 조선일보 「探報台」란의 '一步生'의 단평, 「不振한 文藝批評」(1935. 5. 9)에서도 볼 수 있다.

> 「 …오늘날 朝鮮의 文壇을 鳥瞰해 볼 때 作品과 硏究的인 論文은 比較的 만히 생산되나 批評的인 논문이 퍽은 적은 것은 奇異하다. 勿論 연

---

20) 위의 글, 210쪽.

21) · 이론- 문학을 대상으로 한 일개의 독립한 詩學, 과학상 개념과 이론적 조작의 특별한 수단을 필요로 함(문학사, 문예학, 時事, 美學)
· 비평- 순수한 작품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형식의 평론, 엄격히 미를 중시하는 인상적 공감적 비평 형식도 취함. 평론도 됨.

> 구논문에 있서서 비평적인 것은 發見할 수 업은 것은 안이나 나는 좀 더 朝鮮文壇을 解剖 批評하는 文藝思潮에 對한 비평도 名作家에 作品評等… … 이리하야 嚴格하게 文壇的 水準의 昂揚을 圖하는 同時 그 作品에 가지는 價値標準을 規定하야 조흔 作品을 쓴 作家에게 一方 激勵하고 一方 讀者에게 그 작품을 읽도록 媒介해 주어야 할 것이다. …」

즉 비평적인 논문이 조선문단에 없다고 전제하고 좀 더 조선문단에 관한 시사적인 비평문을 읽고 싶다고 한 점과 그 비평이 '조선문단을 해부 비판하고, 작가에게 격려하고 독자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 점을 보면 一步生이 말하는 '비평이란 곧 時事的 비평, 時評이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時評 성격이 강했던 '短評'도 역시 비평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최재서는 「비평과 月評- 비평의 레뷰化」[22] 에서 비평과 평론을 구별했지만 당시의 문단 실정상으로 보아, 용어상 또는 실질적인 '비평', '평론'의 구별[23]이 불가능했음을 김윤식의 所論[24]과도 일치한다.

---

22) 최재서, 『동아일보』, 1928. 4. 16(김윤식, 앞의 책, 509쪽에서 재인용)
○ 비평- criticism. 문학작품의 특질과 성격을 평가하는 예술. 古典이 재료. 가치가 목적. 학구적 태도
○ 평론- review. 신문 잡지에 기사로서 발표된 문학작품. 특히 최근의 작품을 논하는 일반적인 것. 新刊이 재료. 조사가 목적. 단편적 태도.

23) 평론을 비평에서 구별하기를 원하지 않는 현대의 이론 가운데 Mary Pratt은 「Art without Critics and Critics without Readers」에서 오늘날 비평(주로 학자적 비평: criticism)과 소박한 대중문화적인 비평(review)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을 한탄하고 있다. : 포올 헤르다니 엮음, 최상규 譯, 『비평이란 무엇인가』, 정음사, 1984, 219-231쪽.

24) 김윤식, 앞의 책, 519쪽.
그러나 김윤식이 비평과 평론의 구별이 불가능했던 이유로서 ① 크리티시즘(프로문학론) 퇴조 이후 저널리즘 정리로 인해 발표지에 비형형태가 구속되어 '리뷰화'한 사실과 ② 역량있는 비평가가 없었고, 체계적 연구의 비평은 문단 자체가 감당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든 것에는 異意가 있다.
그 첫째는 김윤식이 '비평형태의 실험으로 리뷰化한 내용 항목'으로 든 '時評, 月評, 書評' 등은 '短評' 등장 이전인 1920年代 에도 이미 있어 왔고 실제로 '短評'은 '時評'의 성격을 다분히 지니면서, 김윤식이 말한 '리뷰화한 내용항목' 전

내용에 있어서 자유로왔던 '時評' 형태는 1924년 무렵 벌써 보이기 시작하여 우리 문단전체에서 비평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지속되어 오던 비평형태였는데 短評은 내용상 文藝時評의 성격을 지니는 비평형태라는 사실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단평은 時評처럼 조선문단의 체질적 성격이 탄생시킨 평론에 가까운 비평의 한 형태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다.

2) 비평의 본질과 단평의 비평성(criticality)

비평이란 근본적으로 주어진 'Text가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 문학인가 하는 것을 규명하는 일'이라고 할 때, 그러한 비평의 자질을 本考에서는 비평성(criticality)이라고 일컫기로 한다.

한편, 비평의 기능을 T. S. Eliot의 말처럼 ① 예술작품의 해명과 ② 작가의 취미를 바로 잡고 지도하는 것,[25] 또는 문학의 이해와 享受를 조장시키는 일[26]로 규정할 때, 비평은 이러한 기능을 다하기 위해 몇 가지

체를 내용상 다 흡수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또 저널리즘으로서의 新聞이 안고 있는 제한된 상황- 즉 간단한 것이 읽기 쉽고 빠르게 전달되며, 너무 전문적이고 학구적인 것보다는 독자로서의 일반대중에 맞는 가벼운 내용이어야 한다는 상황- 은 1930年 이전 新聞短評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문제였기 때문이다.

둘째, 전문적 비평가들은 1935년 무렵에도 계속해서 '행동주의, 기교주의 논쟁, 휴머니즘, 모랄론, 리얼리즘론, 세대론' 등의 전문비평(크리티시즘)을 이어나갔다는 사실로 볼 때, 당시 문단에서 체계적 연구(크리티시즘)를 감당하기 불가능했다는 說 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5) T. S. Eliot, 「비평의 기능」, 최종수 역, 『문예비평론』, 박영사, 80쪽.
「 … 한편 비평은 언제나 뜻하는 목적을 주장하여야 한다. 그 목적은 대체로 말해서 예술작품의 해명과 취미의 교정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비평가의 임무는 그에게 아주 명백하게 밝혀져 있는 것 같으며 … 」(방점 필자)

26) T. S. Eliot, 「비평의 한계」, 앞의 책, 210-226쪽.
詩를 이해하는 것과 즐긴다는 것은 동일한 작용이라고 보아, 비평가의 할 일은 모든 문학작품의 독자로 하여금 올바르게 작품을 읽고 거기에서 만족과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다고 규정하였다.

비평의 과정을 거친다. 즉 ① 작품을 분석하고 ② 그것을 종합하여 ③ 그 결과 작품이 어떤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과정[27]을 말한다.

원래 Text를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Text에 대한 판단 또는 감상의 과정이 있게 되고 평가과정에서는 그 Text의 새로운 가치를 평가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 모색하게 된다. 그런데 短評의 評文구조를 분석해 보면 단평에는 Text(작품)의 구체적 해석과정은 언어로 실현되지 않고, 다만 판단 또는 감상 및 평가의 과정만이 나타나 있다. 단평은 지면상 짧은 길이의 제한을 받는 비평이므로 구체적이고 세세한 해석을 붙일 여유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판단 또는 감상 및 평가의 과정만을 구체적인 언어로 실현한 단평의 評文구조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단평의 評文구조>

① 가벼운 서두
② 논제에 대한 정의 설명
③ 논제를 현 조선문단 상태 및 작품, 작가, 문예이론 등과 비교평가, 비판.
④ 새로운 방향 모색 및 제시

①② 단계에서는 필자의 비평관을 피력하는 수가 특히 많아서 필자의 비평관을 엿볼 수 있다.

대표적 예로 「휴- 마니즘의 失踪」(如水子, 조선중앙일보 「小型論壇」란, 1937. 3. 14)의 전문을 인용하고 분석해 보자.

> 「휴- 마니즘의 失踪이라고 하기는 햇지마는 近來 數年間 文壇에 언제 온 지도 모르게 나타낫다가 언제 간 지도 모르게 사라진 問題는 비단 휴마니즘만이 아니다. 行動主義가 그러하고 모랄이 그러하고 레아리

27) T. S. Eliot, 「비평의 기능」, 앞의 책, 80-96쪽.

즘이 그러하고. e.t.c. …… ①

이러틋 幾多의 問題가 우리 文壇을 逆旅와 가티 지나가는 동안 남기고 간 것은 果然 무엇인가? 이 神出鬼沒하게 나타낫다가는 살어진 問題中에서 가장 最近의 例를 들면 휴마니즘의 失踪事件을 헤아리지 아니할 수 업기에 이것을 題目으로 내세운 것이다. 그러나 失踪이란 말은 語義的으로 解釋한다면 한 번 오기는 반드시 왓다는 事實이 前提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타면 이제 한 번 다시 도리켜 생각할 때 某氏와 가튼 이는 滿盤珍X를 채려 노코 「웰컴·휴-마니즘」이라고 부르지즈면서 歡迎의 先頭에 나서기는 하엿지마는 그 某氏부터도 휴머니즘이 果然 이 땅에 발을 드려 노흔 것을 보앗는가 안보앗는가 의심스러운 일이다.

……②

그러나 지나간 年末年初에 發表된 文壇諸氏의 意見을 綜合해 본다면 今年은 휴마니즘의 해라고 해도 過言이 아닐만큼 거의 八九퍼-센트가 휴-마니즘에 對한 關心과 興味를 準備한 것갓더니 不過 두석 달이 된 오늘에 와서는 벌서 휴-마니즘은 아주 잇처저 버리고 말엇다.

이러케 되고 보면 우리 評檀이 薄情兒들만 모인 때문도 아니고 휴-마니즘이 「모나리자」와 가치 도적을 마저 그런것도 아니라 다만 우리 評論家들이 그러케 시끄럽게 휴마니즘을 떠들기는 하엿지마는 그것은 실상 휴-마니즘의 正體를 붓잡어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한 개의 시루엣드를 보고서 幻覺을 이르킨 것이 아니가 한다. ……③

그 한가지 例로서는 오늘날에 와서 휴마니즘을 云謂한다면 그것과 가튼 것인가 다른 것인가를 먼저 究明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갓다면 現代와 루네싼스의 時代는 어떠한 共通性을 가젓스며 다르다면 무엇이 달른가를 闡明해야만 할 것이데 아직도 우리 文壇에 나타난 휴-마니즘論에서는 이 第一課조차 終了한 것을 보지 못 하였스니 휴-마니즘은 이 땅에 드러오지 안헛다는 것이 더 適當한 말일넌지도 모를 것이다. … ④ 」

위 전문의 구조를 대략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② 문제제기 및 논제 설명- '휴머니즘'만이 아니라 다수의 문제가 우리 문단을 지나가는 동안 남기고 간 것은 무엇인가 이 땅에 휴머니즘은 없었다.

③ 문단 실태 및 평가, 비판- 지난 연말 연총의 조선문단을 종합해 보

면 대부분 휴머니즘의 해였으나 불과 두석 달 사이에 아주 잊어버린 것 같다. 휴머니즘의 정체를 붙잡지 않고 환각을 일으키면서 시끄럽기만 했다.

④ 새로운 방향제시 및 최종평가– 오늘날의 휴머니즘과 르레상스의 그것과 동질성을 먼저 비교한 후 시대적 배경의 同異點을 규명해야 한다. 우리 문단에는 처음 단계가 없었으니 휴머니즘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

短評이 時評의 성격을 띠면서 내면상 작품론, 작가론, 문학이론, 문단세태 등 여러 면을 다루고 있다. 단평은 편수로 계산하면 문단세태에 관한 것이 주로 많다. 작품론, 작가론, 문학이론에 관한 短評의 편수는 적지만, 당시의 일반 비평과 비교하여 뒤떨어지지 않을만한 비평성을 발휘한 것이 많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短評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가치 있는 비평으로서 短評이 실제로 얼마만큼 역량을 발휘했는가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논제분석을 통해서 알아 볼 수 있다.

즉, 주어진 단평을 분석하고 같은 논제에 대한 당시의 일반비평문과 또는 해당 논제에 대한 학계의 기존 평가와 비교할 때 얼마만큼 정확하며, 또 그 短評이 작품이 의미하는 핵심을 파악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방법을 통해서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한다면 그 단평작품이 비평으로서 얼마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을 최종적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 몇 가지 측면에서 短評의 논제를 분석하고, 그 비평으로서의 가치를 알아보기로 한다.

(1) 短評은 작품론적 측면에서 평가의 정확성을 발휘한 일면을 가지고 있었다. 작품론을 다룬 대표적인 短評으로는 조선일보 「연금기」란의 「<鼠火> 新刊評」을 들 수 있다.

「<鼠火> 新刊評」

李箕永氏의 中篇集 <鼠火>가 <賭博>, <人情>, <産母>, 세 編의 短篇과 함께 함께 收錄되여서 刊行되엿다.

이 作品은 일즉이 本報에 連載되엿슬 때도 散讀한 일이 잇섯지마는 이번에 完編으로 읽게 되는 機會를 가지는 同時에 또한 作者는 卷頭의 序文에서 이 作品에 對한 作者의 意圖랫다던지 또는 이 作品이 가지는 年代的 系譜가튼 것을 昭詳히 적은 바 잇서서 이 作品을 읽고 理解하는데 여간 도움이 되지 안헛다.

그런데 作者의 序文에 依하면 이 作品은 己未年 前後의 農村을 그림 것이라고 하는데 붓그러운 말이지마는 筆者自身이 원체 農村事情에 밝지 못함으로 이 作品에 特別히 한 개의 에포크的 特徵이 어데 잇다는 것은 따로 發見하지 못하였다. 다만 이 作品을 다 읽고 나서 이 作品의 全體的 空氣가 이 作品의 제일 끗 場面에 함목에 要約되고 象徵되었다는 것을 깨다렀다.

그 場面이란 바로 정월 첫 봄이래도 아직 겨울 취위가 남어 잇는 느진밤, 未久에 닥처올 새벽을 바라보면서 두 主人公은 것고 있다.

날근 秩序가 기우러지면서 부닥처오는 貧窮과 그대로 남어있는 因마치 季節의 餘寒과도 갓다. 그러나 X은 어듸로선지 닥처올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돌쇠라는 主人公을 通해서 끗까지 살고 잇다. 다만 그 方向을 모를 따름이지 돌쇠에게는 決코 絶望이 업다.

이 作品이 씨혀지든 當時의 우리 文壇의 創作傾向을 回想한다면 公式主義的인 生産層(勞動者 農民)의 偏愛的 傾向이 潮滿하엿슬 때이다. 이러한 雰圍氣 속에서 이러한 테마의 作品을 쓰면서도 作者는 호들갑스럽게 스토리의 奇驚함을 꾀하거나 虛慌하게 主人公의 英雄化에 熱中하지 안코 場面마다 現實的인 레아리틔를 가장 古典的으로 槪括하면서 그우에 돌쇠라는 人物이 浮彫와 가티 縱橫으로 活動하면서도 作爲的인 해피엔드에 汲汲하지 아니한 것은 果然 大家의 手法이 엿보인다.

萬一 이 作者더러 深刻한 愛慾의 葛藤이나 華X한 都會의 消費面 을 그리라고 한다면 꼭 能할지는 모르겟스나 鈍重하고 素朴한 農村生活을 그리는 데 잇서는 作者의 悠悠不迫한 호흡과 重厚한 筆致가 서로 어울려서 한 개의 調和를 이루어 그 雰圍氣를 나타내는 데는 아마 이 作者로 하여금 우리 文壇의 第一人者라고 하지 않을 수 업슬 것이다.

그리고 끗흐로 이 作者에게 매양 尊敬의 念을 가지게 하는 것은 主人

公에 對한 作者의 人生態度이다. 이 態度는 <鼠火>에서도 그러코 <産母>에서도 그러코 또 다른 短篇에서도 늘 보이는 特徵이지마는 主人公이 아무리 貧窮에 쪼들리고 또는 그 貧窮으로 말미암아 罪를 짓는 境遇에도 그 罪惡의 범죄는 決코 主人公의 心腸까지 파먹지 못하게스리 主人公의 「휴마니틔」를 항상 擁護하는 人生態度 그것이다. 이 尊敬의 念으로서 나는 敢히 이 작품을 一般X人에게 薦하는 바이다. (定價七十錢 發行所 市內X町一一二 東光堂書店 振X口座京城一六一二一番)

(李源朝, <練金機>, 1937. 8.17)

<鼠火>는 프로문학가 李箕永이 1933. 5. 30~1933. 7. 1까지 조선일보에 연재한 신문소설이며 보통 '프롤레타리아 농민소설'[28]의 대표로 꼽히는 작품이다.

주인공 돌쇠의 노름 행각과 입분이와의 정분사실을 통해 기미년 이후 농촌실정 즉, 점점 각박한 농촌인심과 빈궁함, 조혼제도를 비판함과 동시에 당시 농촌사람들의 思考체계를 보여준다[29]는 점에서도 이 소설은

---

28)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81, 358쪽.

29) 「<서화> 신간평」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서화>의 줄거리를 간략히 보이면 다음과 같다.

(一) 돌쇠는 해마다 쥐불싸움이 쇠해감에 실망함.

(二) 바보 응삼의 소 살 돈을 돌쇠가 땀.

(三) 돌쇠 모친과 김첨지가 돌쇠를 나무람, 무슨 일을 하든지 돈버는 것이 첫째라는 돌쇠의 반항심 묘사, 김첨지의 생활을 통한 세상의 변모와 소작농의 실정 묘사.

(四) 돌쇠의 소문에 노름 선호풍조가 생김, 응삼이처 입분이와 돌쇠의 정분 사실을 김원준이 눈치 챔.

(五) 보름 명절날 널뛰기 풍경 묘사, 일분과 돌쇠의 사정변명을 통해 극히 어려운 사회경제 사정 묘사.

(六) 노름풍조와 풍기문란 사실을 들며 원준이 구장에게 돌쇠를 모략함.

(七) 진흥회장 정주사 집에서 동리정화회의가 열림. 농촌 풍기문란의 원인은 조혼제도에 있다는 동경 유학생 정광조의 말, 먹을 것이 없어 노름하였고, 풍기문란 문제 음모는 원준이 꾸민 것이라는 돌쇠의 말, 회의가 끝나고 원준이 도망함, 자유연애에 대한 동경과 대학생이라는 특이한 존재를 부각시키는 입분과 돌쇠의 대화장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鼠火> 新刊評」에서 언급한 사항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된다.

① 작품의 전체 분위기가 제일 끝 장면에 요약 상징된 점. 두 주인공의 걸음이 낡은 질서의 기움, 남은 빈궁의 사라짐, 그리고 다가올 봄과 새벽을 상징한다는 점.

② 공식주의적 생산층(노동자, 농민)에 대한 편애적 경향이 충만하던 당시의 창작경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레알리티를 개괄하였으며, story의 기경함, 주인공의 영웅화, 작위적 해피엔딩에 급급하지 않은 점.

③ 작자의 유유불박한 호흡과 충후한 필치가 둔중 질박한 농촌생활을 그리는데 조화를 이루어 낸 점, 작가는 그 분위기 표현에 제일인자라는 점.

④ 빈궁으로 인한 죄악도 주인공의 양심까지 파먹지는 못하도록 주인공의 「휴머니티」를 옹호하는 작가의 인생태도를 존경한다는 점.

위에서 언급한 사실 중, <서화>가 당시의 공식주의적 창작경향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레알리티를 개괄함으로써 大家의 수법을 보인 작품이라고 지적한 것은 오늘날의 <서화>에 대한 평가와 일치한다. 즉, <서화>는 프로문학의 목적의식을 드러내지 않고 己未以前의 농촌 전래풍속 묘사에 주력하는 이념적인 정숙주의로 본질화하면서 피폐한 농촌 소작인의 실태와 도박행위를 제시한 작품이며, 유학생 鄭光朝의 지적(농촌 풍기문란의 원인은 조혼제도에 있다는 것)은 프로문학의 목적성에서 상당히 후퇴한 현상이라는 이재선[30]의 견해와 과거 目的意識期의 기계주의적 공식적 편향과 과격한 제재성에 의뢰하던 경향에서 벗어나서, 광범한 제재를 취하며, 일상생활을 중시하고 인물을 전형화하는데 進度를 보인 대표적 작품이라고 평가한 백철[31]의 견해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이재선, 백철 兩氏의 견해는 「<鼠火> 新刊評」에서 보인 이원조의 평가를

30) 이재선, 앞의 책, 358쪽.
31) 백철, 『신문학사조사』, 신구문화사, 1982, 388쪽.

토대로 이루어진 것 같다.

작품 전체의 상징성이나 창작경향, 문체, 작가의 주인공에 대한 인생태도에까지 구체적이고 세세한 분석평가를 시도한 「<鼠火> 新刊評」은 그 質的인 가치면에서 오늘날의 평가에 벗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오늘날의 작품평에 뒷받침을 할 정도로 비평으로서의 가치를 보인다는 사실을 근거로 생각할 때, 短評에는 작품론적 측면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던 가치있는 비평들이 있었음을 인정하게 된다.

그 외에 작품론으로는 「心紋의 生理」[32](金起林, 조선일보 「봉수대」란, 1939. 6. 9)」, 「死와 詩」[33](巴明, 조선중앙일보 「미네르바-의 소총」란, 1935. 7. 4), 「湯淺氏의 <대추>」(巴明生, 조선일보 「연금기」란, 1937. 7. 28) 등이 있는데 이러한 단평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2) 短評은 작가론적 측면에서도 작가의 창작경향을 예리하게 평가한 비평이다. 작가론을 다룬 短評의 대표적인 예로는 「소설 <흙>에 나타난 춘원의 의식」을 들 수 있다. 전문을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小說 <흙>에 나타난 春園의 意識」

世稱 民族文學派의 巨將 春園의<흙>을 읽고 氏의 創作態度에 잠시 憂鬱하였다.

藝術의 功利性을 否認하면서 人生에의 裨益을 말하는 (그것마자 隱弊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라 過去에 進步的 文學의 時間的이었던 조그만 誤謬- 이른바 目的意識性을 攻擊하야 무어니 무어니 可憎極 한 憎惡의 亂發을 마지 않았든 것은 이를테면 此亦 自意識의 我田引水的 强調와 캄푸라지- 에 不過한 것이었다.

文學의 獨自性 속에 캄푸라지- 되었든 저들의 民族意識 그것을 새삼스러히 擧論할 필요가 있으랴마는 허울좋은 하눌타리가 『조선 사람은

32) <心紋>은 崔明翊이 1939년 6월에 「文章」지에 발표한 심리소설이다.

33) 「死와 詩」는 35년 7월 「中央」지 7월호에 실린 「雙樹台人」의 詩 <죽엄>에 대한 작품론이다.

… 』式의 踏步로 ! 가 可笑로울 뿐이다.

저들의 原則인 所謂『조선 사람은 … 』의 金科玉條가 그런 것이어든 春園이라 例外- 라기보다 보다 强度로 形象化될 것은 呶呶할 필요가 없겠다.

<흙>을 通 하야 보여진 春園의 意圖한 것- 그것은 한 개의 改良主義的 農村振興運動이다. 當然한 路線이겠지만 一 步를 讓하야 저들의 標榜하는 純文學의 立場에서 보드라도 春園은 이른바 踏步!에 體操敎師的 情熱을 너무도 主觀的인 軍號를 마다 않하였다. 조선이란 閻羅大王 앞에서 作中人物을 無理한- 너무도 無理한 道德的 懺悔를 시키는 것이다. 主人公 許崇부터가 虛構的 人物이지만 작은갑의 無視된 人間性(정근을 휘여넣은 것은 過去 푸로文學의 그것(無意識勞動者가 눈깜빡할 사이에 訓練된 투사가 되는 것과 얼마의『아지』로 곧 農民이 組織的인 행동을 하는 것과 恰似하다)과 정근의 僧侶的 懺悔- 이것은 目的意識的 急造에도 가장 極 한 것이다. 春園은 의식의 推移過程에 있어의 生活과 環境과 時間의 關係와 影響을 意識하지 못하였음일까! 아니 그것도 强烈한 主觀의 不可避한 歸結이겠다. 如何튼 이 한 篇은 그들의 캄푸라지- 를 벗기는 좋은 標本이라 하겠다.

(金北原,「日評」란, 1936. 2. 21)

金北原이 지적한 것은 예술의 공리성을 부인하면서도 인생에의 도움이 되게 함을 요구하는 춘원의 이율배반적인 창작의식이다.

즉, 춘원이 순수문학적 입장, 문학의 독자성을 표방하면서 목적의식성을 공격해 온 것은 그들의 민족의식(개량주의적 농촌진흥운동과 같은 것)을 숨기기 위한 허울 좋은 캄프라지- 라는 것이다.

<흙>을 그들의 캄프라지- 를 벗기는 좋은 표본이라고 비판하는데, <흙>에서 춘원이 의도한 것은 개량주의적 농촌진흥운동이었다는 사실과「조선」이란 것을 표방하여 작중인물에게 너무 무리하게 도덕적인 참회를 시칸 사실을 그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한다.

즉, 허숭도 허구적 인물이지만, 작은 갑의 무시된 인간성이나, 정근을 휘여넣은 사실, 정근의 승려적 참회 등에서 과거 프로문학에서 보여지던

목적의식적인 急造(무의식노동자가 갑자기 훈련된 투사가 되거나 농민이 조직된 행동을 하는 것)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춘원이 종래의 문학에 있어서 유교식도덕과 권선징악의 목적의식을 내세우는 것을 거부[34]하면서도 人生을 위한 예술[35]을 주장하고 또 民族主義를 내세웠으며, 朝鮮사람을 위한 문학을 표방[36]하는 作家意識上의 모순을 보인 것은 근래에 와서도 많이 지적되는 사항이다. 柳宗鎬[37]의 비판이나 전광용[38]의 비판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또 근래에 <흙>이라 하면 대개 농촌소설 또는 농민 敎化小說[39]의 대표로 들며, 브나르도 운동을 문학화한 소설로 평가한다. 백철은 1930년대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펼쳐진 브나르도운동을 민족주의 문학의 한 귀착점으로 보고, <흙>을 당시 동아일보사 편집국장으로서 브나르도 운동의 당사자였던 이광수가 브나르도 운동을 문학화한 소설로서 평가하고 있다. <흙>이 근자의 소론처럼 브나르도 운동을 문학화한 작품으로 평가될 때 앞서 인용한 김북원의 短評에서 <흙>에서 춘원이 개량주의적 농촌진흥을 의도했다고 한 견해는 타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 이로 미루어 볼 때, 문학의 독자성을 표방하고 목적의식을 거부하면서도, '민족주의' 또는 '조선사람을 위한 문학'으로서 '개량주의적 농촌진흥운

---

34) 이광수, 「文學이란 何오」. 매일신보, 1916. 11. 10~11. 23.
「… 從來 朝鮮에서는 文學이라 하면 반드시 儒敎式 道德을 鼓吹하는 者. 勸善懲惡을 諷諭하는 者로만 思하여 此準繩外에 出하는 者는 唾棄하였나니, 是乃 朝鮮에 文學이 發達치 못한 最大限 原因이다. …… 」

35) 이광수, 「우리文藝의 方向」, 『조선문단』 13호, 1925. 11.
「… 人生의 모든 活動은 살기 위한 活動인즉, 藝術도 살기 위한 藝術, 卽 人生에게 '살림'을 주는 예술이라야 할 것… 」

36) 이광수, 「余의 作家的 態度」, 『東光』 20호, 1931. 4.
「… 내가 소설을 쓰는데 첫째 가는 目標가 '이것이 朝鮮人에게 읽혀지어 利益을 주려' 하는 것임은 勿論이다. … 」

37) 유종호, 「어느 半文學的 肖像」, 『문학춘추』 1권 8호, 1964.

38) 전광용, 李光洙硏究序說, 「李光洙硏究(上)」, 太學社, 1984, 430-432쪽.

39) 이재선, 앞의 책, 354-357쪽.

동'을 위해 <흙>이라는 목적문학을 쓴 춘원의 작가의식도 '허울좋은 캄푸라지-"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을 만한 것이었다.

短評이라는 짧은 지면상의 제한으로 인해 더욱 세세한 설명을 붙일 수 없었겠지만, 간단하게 압축, 요약하며 보여준 <흙>에 대한 평가와 춘원의 작가정신에 대한 평가는 오늘날 諸氏의 견해에 견주어 보아 부정확하거나, 허술하게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1930년대에 벌써 오늘날 諸氏의 견해에 못지않은 정확하고 날카로운 비평적 안목을 구사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金北原의 단평에서 놓칠 수 없는 부분은 춘원이 '조선'이란 것을 표방하여 작중인물에게 너무 무리한 도덕적 참회를 하게 하였다는 평가이다. '유정근'은 살여울 부자 '유산장'의 아들이며, 동경유학에서 돌아온 인물인데, '허숭'이 만든 협동조합 때문에 長利, 長邊을 못놓게 되어 자기 집 경제가 파탄에 빠지자, '허숭'과 그의 동지들을 중상모략하여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받게 한다. '작은 갑'은 '허숭'과 함께 희생된 인물로서, 출옥 후에 '정근'을 찾아가 설득하고, 회개시켜 그를 동네 농민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에게 진 농민의 빚을 (만육천 여원) 탕감하게 만들며, 희사금(육만원)까지 내놓게 하여 협동조합을 출발시키는 농민자생적인 농민운동주도자이다. 농촌에서 자생적인 농민운동자로서 '작은 갑'이라는 인물이 탄생하고, 그가 활약하여 악인 '유정근'을 회개시키는 장면 등을 김북원은 과거 프로문학에서 無意識 노동자가 갑자기 훈련된 투사가 되어 버리거나, 농민이 조직된 행동을 하는 등, 무리한 조작을 시켜왔던 상투적인 사실과 동일한 目的意識的인 急造라고 평가한다. 이는 근자의 송욱이나, 그 시대 민병휘의 평가에 못지 않은 중요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송욱[40] 은 악인 '정근'이 마지막에 회개하고 희사금을 내놓음으로서 해피엔드로 끝나는 사실을 <흙>이 대중소설 또는 통속소설이 될 수 밖에 없는 중요한

40) 송욱, 「日帝化의 한국 휴머니즘 비판- 이광수 作 '흙'의 의미와 무의미」, 『文學評傳』, 일조각, 1980, 14쪽.

근거로 제시하였고, 민병휘[41]는 <흙>속에 부자연한 우연이 너무 많음을 지적하는 가운데, 첫째, 변호사를 지냈다는 허숭이 남의 죄까지 뒤집어 쓰고서 5년이란 긴 세월을 복역하는 사실, 둘째, '작은 갑'이란 청년이 돌연사한 擧措, 셋째, 극악한 '유정근'의 순간적인 회개와 많은 자금을 희사하는 사실들을 들고, 첫째 사실에 대해서는 봉건적 영웅의 행동으로, 둘째 사실은 현대에서 보지 못한 사실로서, 셋째 사실은 <추월색> 시절에나 써질 수 있는 요소로 비판하였던 것이다. 허숭이 실재하기 힘든 이상적이고 헌신적인 인물이라는 평가는 분분하지만 주변인물의 갑작스런 변모까지도 놓치지 않고 날카로운 비평적 안목을 보였던 김북원의 短評은 오늘날까지도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短評은 지면상의 제한을 받아 간단하게 쓰여졌지만, 작가의 창작경향, 의식에까지도 압축적이면서도 정확한 비평성을 발휘하였던 가치 있는 비평들도 많았음을 알 수 있다.

(3) 短評은 文藝思潮的인 측면에서도 일반 비평들 못지않은 이론적 전개를 보인다. 단평에서는 많은 思潮에 관한 論議가 전개되었으나 여기서는 '행동주의'에 관한 논의한 短評을 하나만 예로 들기로 한다.

「情熱의 貧困」

> 藝術의 象牙塔 속에서 비둘기를 키운 것은 十九世紀의 일이요 現實을 떠난 象牙塔 속에서 오스카와일드가 海X의 珍珠를 사랑한 것도 벌써 지난간 일이다. 오늘에 있어 現實을 등진 象牙塔을 修築한다는 것은 얼마나 웃으광스러운 悲劇이냐. 하우프트맨이 『해뜨기前』『沈鍾의 良心』을 考古學者에게 팔어 버리고 나치스 花環 속에 『黃金의 琴』을 써가지고 最大의 敬意와 愛嬌를 表하며 들어간 것은 벌써 낡은 手帖의 한 페지다. 하우프트맨의 頭腦는 商人의 算盤을 넘어섰다. 그러나 그는 그만큼 不

41) 閔丙徽, 「춘원의 <흙>과 民村의 <고향>- 농민소설로서의 대조-」, 「조선문단」 통권 23호, 제4권3호, 1935. 4, 125쪽.

> 幸했다. 藝術은 決 코 政治的 道具가 아니요 利用物이 나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낡은 常識의 하나다. 文學은 文學으로서의 獨自性이 있다. 藝術을 閑寂한 娛樂으로 안 것은 港口의 문을 잠구든 李朝 때의 이야기다. 오즉 偉大한 藝術만이 피서린 情熱의 戰野를 거쳐서 엄틀 것이요 名譽가 돌아올 것이다. 秦始皇의 白日夢을 사랑한 나치스 파시즘이 든 文化 抑壓의 칼 밑에 巴里에서 열린 文化擁護國際作家會議의 意義는 크다. 앙드레지드와 꼴키며 마르로의 論旨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오늘의 文化는 反動의 거미줄에서 苦悶하고 또한 文學이 人間의 苦惱와 함께 不安 속에서 苦悶하고 있다. 천박한 俗衆과 卑俗한 生活과 妥協한다는 것은 良心的 作家로선 避치 못할 墮落이다. 우리 文壇엔 情熱의 貧困이 있다. 創作의 才分보다도 먼저 熱이 있어야 한다. 文章에 있어 純粹한 藝術的 修練이며 獨創的 境地의 開拓, 眞摯한 리알리즘의 探求가 있어야 될 것이며 偉大한 朝鮮文學의 建設을 위하얀 모든 苦難을 넘어슨 情熱에 빛나는 『로맨틱스트』가 되어야 할 것이다.
>
> (李鳳九, 「日評」, 1936. 2.9)

앞서 인용한 李鳳九의 단평에서 말하는 요점은 다음 몇 가지이다.

상아탑 속의, 현실을 떠난 예술은 지나갔다는 것과 예술은 결코 정치적 도구나 이용물이 아니며 예술만의 독자성이 있다는 것, 오늘날의 문화는 反動의 압제(나치즘의 압제) 밑에 고민하고, 문학이 인간의 고뇌와 불안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에 파리에서 열린 '문화옹호국제작가회의'의 의의는 크다는 것, 천박한 俗衆과 생활과의 타협은 작가의 타락이며, 위대한 예술은 피 서린 정열의 전쟁터를 통해서만 움트며 명예로울 것이다. 우리 문단에는 그런 정열이 빈곤한데, 조선문학의 건설을 위해서도 창작의 才分보다 모든 고난을 넘어선 정열이 필요하다. 그래서 문장의 순수예술적 수련과 독창적 개척과 진격한 레알리즘의 추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동주의에 관한 견해는 우리 문단에 수용되면서 상당히 많이 변모된다. 행동주의의 선구자 라몽 페르낭데스가 파리 2월사건(1934. 2)에 자극되어 1935. 2월 N. R. F지에 「정치와 문학」을 논하면서 '힘과 생활과를

결부시킨 詩, 정치적인 詩'를 채택할 것이라고 하여 詩의 행동성과 예술의 공리성을 주장한 사실과, 앙드레 말로가 2차대전시 비행기 위에서, 파괴된 지하실에서 우너고를 씀으로써 행동을 통한 인생 전체적 표현을 시도했었던 사실들에 착안하여, '현실을 떠난 예술을 거부'하고, '현실적인 레알리즘'을 추구하는 것이 행동주의의 핵심인 것으로 강조한 비평이 많았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이봉구가 제시한 행동주의에 대한 短評 「정열의 빈곤」도 '현실적인 레알리티 추구'를 제시하고 강조하기 위해 쓰여진 단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현실적 레알리티를 행동주의의 핵심으로 파악한 당시의 비평가로는 함대훈, 노천명 등을 들 수 있다. 함대훈은 「지식계급의 불안과 조선문학의 장래」(조선일보, 1935. 2)에서 '문인은 …… 좀 더 사회현상의 생생한 사실을 토대로 해야만 조선문학의 발전에도 힘이 된다.'고 하여, 이봉구의 제시처럼 현실적인 레알리즘 추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고, 노천명[42]은 앞서 '행동을 떠난 사상은 枯渴한 사상이다. 작품의 사상성이란 조흔 행동의 동기를 지어주는데 가치가 있다. …… 그 사상은 깊은 체험과 관조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비로소 남의 감정을 흔드러 놓을 수가 있다'고 하여 행동 또는 레알리티를 통한 작품활동을 주장한 바가 있다.

또, 행동주의를 소개, 논의한 短評들을 살펴보면, 당시의 비평가들이 행동주의를 프로문학의 새로운 무기로서 받아들였다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대표적 예로 「巴文里化의 國際文化擁護聯盟」[43]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국제문화옹호회의에 모인 작가들은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통일성이 없더라도 지금까지 정치와는 무관한 문학자로 자처하던 이들이 文化를 위해 정치적 전선'에 나선 것을 강조하고 우리 작가와 평론가들이 자극받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論旨는 과거 프랑스

42) 노천명, 「擬製左翼」, 『조선중앙일보』, 「일평 」란, 1935. 10. 23.
43) 如水, 『조선일보』, 「탐보대」란, 1935. 8. 31.

에서 파리폭동사건(34. 2)이후에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제 유파를 극복하고, 지식계급연맹(지식계급의 '브르'와 '프로' 계급의 결합)을 조직하여 파시즘에 대항함으로써 행동주의로 발전했었다는 사실에서 착안하여, 홍효민이 '조선의 객관적 정세가 브르조아지문학과 프로문학이 타협적으로 흐르고 합류의 가능성을 보임으로 그 중간적 존재로서의 행동주의 문학이 나타나리라'고 전망[44]하고, 행동주의 문학은 '새로운 국면을 타개할 신경향 문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시한 사실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또, 김문집[45]이 동경문단의 행동주의를 살피는 자리에서 행동주의를 '프로문학의 再起'로써 전망하였던 사실과 꼭 같은 평가로 볼 수 있겠다. 당시의 비평가들은 대부분이 左翼경향을 보여왔었고, 또 행동주의의 수용이 프로문학 퇴조시기에 연접하여 이루어졌던 사실을 고려한다면, 행동주의를 '프로문학의 再起' 또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당시의 경향은 아주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이상의 비평들은 모두 행동주의에 관한 정확한 비판을 거친 후에 받아들이기보다는 편리한 부분만을 편협적으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데서 온 결과로 보여진다. 「정열의 빈곤」 또한 이러한 테두리에서 이해되는 단평이다.

그러나 이 단평은 첫째, 논리 전개의 정확성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당시 이론가의 글 속에는 논리전개가 허술하고 비약이 심하여 비평문으로서의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는 글들이 많았던 시대였다. 우선 그의 글은 비평적 안목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문예사조의 논의가 구체화된 단평이다. 이 점은 한국 현대 문학사조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셋째, 독자들에게 문학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일과 세계문학사조에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4) 홍효민, 「행동주의 문학 운동의 검토- 附 행동주의 문학의 조선적 가능」, 「조선문단」, 1935. 8월호

45) 김문집, 「동경문단의 근모- 행동주의를 중심삼아」, 『조선일보』, 1936. 1. 4~1. 8.

이상, 「정열의 빈곤」을 통해 비평적 안목에서 논리를 전개해 간 단평이 당시에 있었음을 확인하였을 뿐더러 비단 「정열의 빈곤」 뿐 아니라 문예사조적 측면을 논하는 이 같은 단평이 많이 있었음은 한국 현대문학사조를 체계 있게 연구하는 데에 대단히 값진 연구자료가 바로 단평임을 명시하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비평의 기능이 독자의 문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할 때, 단평은 그 기능의 일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도 미루어 알 수 있게 한다.

(4) 단평은 문학이론적 측면에서도 정확한 개념전달을 하고 있다.

일본문단의 무비판적 수용에서 오는 문학용어의 혼란을 겪고 있던 당시의 문단에서 문학용어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하여 단평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많은 문학용어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신문소설, 대중소설, 통속소설, 장편소설'간의 개념혼란은 아주 심각한 논의거리였다. 이 당시의 短評들을 살펴보면 短評도 일반비평들 못지 않게 이 논의에 이론을 제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구체적 일례로 「대중소설檀의 分化」 전문을 살펴본다.

「大衆小說檀의 分化」

朝鮮서는 長篇小說이라 하면 으례히 新聞에 연재되는 大衆小說을 意味하는 것으로 아는 것이 常識인 듯하다. 長篇小說을 發表할 機關이 新聞박게 업는 朝鮮인지라 그러케 생각하는 것도 근 妄發은 아닐지도 모르나 藝術小說로서의 長篇小說과 大衆小說과는 明確히 區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캐 하는 것이 朝鮮文學의 健全한 發達과 水準向上을 爲해 대단 必要한 것이다. 元來 卑俗한 趣味에 迎合하는 淺薄한 興味中心의 小說이 藝術小說과 別個로 그 存在를 主張하기 始作한 것은 日本內地에서도 大正年代以後의 일에 屬한다. 英米에도 勿論 잇기는 하나 그 文壇的 地位는 極 히 低劣하다. 蘇聯에는 全然 그 따위 장르는 存在치 안는다. 이런 것을 分析한다면 또한 興味있는 일이나 그것은 지금 고만두기로 하고 지금은 다만 朝鮮에 잇어 大衆小說로서 認識하고 評價하는 것

> 이 急務임을 指摘하랴는 것이다. 作家中에는 藝術小說로써의 新聞小說을 쓰랴고 努力사람도 잇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努力이 成功하는 것은 (夏月X石에서 보는 바와 가티) 大端 困難할 뿐 아니라 特殊한 社會的 環境을 必要로 한다. 어쨔든 作家는 小說을 執筆할 때에는 自己는 지금 藝術小說을 쓰랴는 것인가 大衆小說d을 쓰랴는 것인가에 對한 自覺을 가져야 할 것이요 讀者는 小說을 對할 때에 그것의 장르를 알고 對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은 大衆小說의 正當한 發展과 그의 墮落을 防止하랴는 徵意에서 나오는 것이다.
>
> (有言生, 「鍊金機」, 1937. 8. 4.)

위 「大衆小說壇의 分化」에서 有言生이 말한 要旨는 다음과 같다.

장편소설은 신문에 연재되는 '대중소설'로 아는 수가 많은 데 이는 장편소설을 발표할 기관이 신문밖에 없는 탓인 것 같다.

그러나 조선문학의 건전한 발달과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예술소설'과 '대중소설'을 명확히 구별하고 평가해야 한다. 일본에서도 대정연대 이후 예술소설과 비속한 취미에 영합하는 흥미중심의 소설을 구별하기 시작했다. 작가는 예술소설로서의 신문소설을 쓰려면 대단한 노력과 자각이 필요하며, 독자도 그 소설의 장르를 알고 대해야 한다. 이 견해는 예술소설의 정당한 발전과 타락방지의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

당시의 우리 문단에서는 新聞小說과 長篇小說, 大衆小說이라는 세 용어는 거의 같은 小說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 사실이다. 장편소설이라면 의례 '신문소설'이었고, 신문소설은 연재소설이므로 신문사 측의 상업주의에 영합하녀 독자의 통속위미를 고려하고 흥미중심으로 쓰여졌을 것이기 때문에, 신문소설은 자연히 '통속소설'을 의미하게 되어버린 데서 연유한 듯하다.[46] 이러한 개념상의 혼란 문제에 대해 논의한 일반적 비평문이나 短評의 數가 많은 것을 보아도 당시의 문단에서 여기에 관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나를 짐작할 수 있고, 당시 문단

46) 백철, 앞의 책, 526-529쪽.

의 작가나 비평가들이 이 문학용어의 개념을 올바르게 구분하고 인식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新聞小說'이란 '본질상 저널리즘의 하나의 상품성으로 독자를 취급하며, 그날 그날의 흥미를 우연적으로 추구하는 連載形式'[47]을 말한다. 그러자면 자연히 신문소설은 大衆作家의 손에 쓰여지며, 통속적인 테마를 취급하게 된고, 결국 테마의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당시의 비평가와 作家에게는 '長篇小說'은 短篇小說의 '靜的이고 平面的인 構成'과는 달리 '立體的이고 動的인 構成'을, 곧 '高層建築과 같은 構成'을 중요 특징으로 하는 것[48]으로서 藝術小說에 속하는 것으로 의식되었던 것 같다. 또 '通俗小說'이란 현대의 상업주의적 저널리즘을 배경으로 하고 잉태된 근대 정통문학의 한 붕괴과정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땅에서는 1935년 이후 1937, 8년경까지 신문이라는 기관 위에 상업적인 통속소설이 자리잡고 성행하여 通俗小說과 신문소설의 개념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게 된 것 같다. 백철이 이런 개념상의 혼란 원인이 長篇小說이 의례 신문소설로 발표되었던 때문이라고 본 견해[49]는 短評 「대중소설壇의 분화」에서 보인 有言生의 견해와 일치한다. 有言生은 '장편소설'을 신문에 연재되는 '대중소설'로 아는 수가 많은 이유가 '장편소설을 발표할 기관이 신문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또는 당시의 韓植[50]의 논문에서 신문소설을 '우리 문단에 겨우 남아있는 장편소설의 발표형식' 또는 '우리 땅에서 유일이라고 해도 좋을 장편소설의 발표기관'으로 단정한 사실들을 살펴보아도 당시는 충분히 개념상의 혼란을 가져올 만한 상황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대부분의 비평가들은 당시의 개념혼란을 우려하는 한편 예술소설로서의 장편소설과 대중

47) 韓植, 「新聞小說의 再檢討- 作家에 대한 要望과 비평가의 태도-」, 『조선일보』, 1937. 10. 28~10. 31.
48) 三色童, 「 長篇小說考」, 『조선일보』, 「鍊金機」란, 1937. 7. 17.
49) 백철, 앞의 책, 526-529쪽.
50) 한식, 앞의 글.

소설을 구별하길 원하였는데, 이런 사실은 위에서 보인 有言生의 短評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평가들은 기왕 長篇小說의 유일한 발표형식이 '신문소설' 형식인 바에야, 조선문학의 발전과 향상을 위해서는 신문소설의 형식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순수한 예술소설로서의 장편소설이 되도록 제시한다.

有言生의 論旨 가운데 '작가는 예술소설로서의 신문소설을 쓰려면 대단한 노력과, 여기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며 … … 독자도 그 소설의 장르를 알고 대해야 한다'고 한 것에서 이러한 의도를 찾아 볼 수 있다. 또 韓 植이 우리 문단의 신문소설은 예술적 목표와 지향점을 개척하려는 예술적 작가에 의해 쓰여지는 면에서 대중작가의 손에 쓰여지는 다른 땅의 意義와는 다르다고 전제한 후에, 「 … … 우리 땅에서 유일이라고 해도 좋은 장편소설의 발표기관으로서 신문소설의 임무를 충분히 자각하여 그에다가 예술적 XX에서 生長한 로망의 자격을 갖춘 長篇小說의 성격을 부여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有言生, 韓 植의 제시 뿐 아니라, 1935년대의 박로갑[51] 의 단평에도 신문소설은 '대개 얼빠진 연애타령이나 하고, 되잖은 野談거리나 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애오라지 藝術小說' 되다 못된 것이 大衆小說이란 착각을 그만 좀 팡개치고 독자 대중의 취미에 따를 게 아니라 생활의식에 대한 의의가 있도록 … … 작가는 한 힘을 빚내 볼 수 업슬가 '라고 하여 예술소설로서의 신문소설을 추구한 것을 볼 수 있다.

신문소설과 장편소설, 대중소설 사이의 개념혼란 문제에 관해 살펴보는 가운데, 短評 「대중소설단의 분화」는 형식상의 제한으로 인해 다른 일반적 비평들처럼 부연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논지를 압축하여 묘사함으로써, 신문소설, 장편소설의 명확한 개념구분과 원인설명, 그리고 우리 문단에서의 신문소설의 방향제시 등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 가치 있는

51) 박로갑, 「新聞小說에 對한 것」, 『조선중앙일보』, 「日評」란, 1935. 10. 9.

비평이었음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이상의 예에서 보듯이 단평은 문학용어적 측면에서도 정확하고 긴요한 이론전개를 보임으로써, 비평이 본래 독자를 위해 담당해야 할 제도적 기능을 잘 수행한 단평이 당시에 많았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도 단평은 의의있는 문학형태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5) 당시의 비평 가운데는 일정기간 동안의 文壇을 개괄하고 반성하는 것이 많았는데, 단평에도 그런 것이 많고, 이런 단평을 통해 당시의 文壇世態를 알 수 있다.

당시 우리 문단에서의 비평은 時評的인 성격을 가진 것이 많았고, 또 당시에는 연말연시에 한 해의 문단을 개괄, 회고하고 또 전망하는 總評이나, 한 해의 上半期, 下半期를 개괄하는 批評과, 그달의 작품, 비평들을 개괄하는 月評형식의 비평들이 批評界의 중요한 관례로 많이 쓰여졌었다. 단평 가운데도 이처럼 한 해의 문단의 總評이나 月評, 時評의 성격을 띤 것이 많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당시의 문단세태를 잘 알 수 있게 된다. 문학작품이나 작가의 올바른 연구를 위해서는 그 배경으로서의 문단상황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할 때, 정확한 문단세태를 알려주는 단평은 아주 귀중한 문학연구의 자료로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 한 예로서 1935년의 문단을 회고하고, 1936년의 문단을 전망한 總評형식의 단평 「緊張되는 最近의 文壇」을 예로 든다.

「緊張되는 最近의 文壇」

> 지난해 같이 朝鮮文壇에 있어서, 不幸하고 多難한 해는 다시 없을 것이다. 良心的, 進步的인 거개의 文人, 藝術家들이 大部分 囹圄에서 有X한 時間 一年餘를 보내게 하였든 것도 이 해이었고 「카프」가 解散의 운명을 마지하게 되었든 것도 이 해이었다. 이러듯 실로 苦難 가운데서도 오직 몇 사람의 熱意的인 良心的 藝術家들은 역사적 XX적 X命을 스스

로가 自負하면서 孤壘死守 一縷의 命脈만을 千幸히 保存함에 갑뿐 숨을 쉬든 것도 지난해의 사실이였다. 그러나 이 해(一九三六年)를 새로히 마지함에 땋아 囹圄에서 돌아온 그들 熱意的 行動을 우리는 또한 크다란 關心밑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실이다. 「故鄕」(小說)에서 朝鮮의 左翼文壇을 빛내게 하든 作家 李箕永氏는 健筆을 잡아 「人間修業」의 장편소설을 집필하며 또한 일즉이 「工場新聞」에서 그 力量을 나타내든 作家 雪野氏는 亦是 장편 「황혼」을 집필하고 있으며 文藝評論에 있어서도 白鐵, 송영 등의 諸氏의 글들은 벌서부터 우리들의 視線을 모으고 있다. 당분간은 沈默을 직히리라고 믿어든 이들의 넘우나 熱意的 態度에 우리는 먼저 最大의 讚辭를 애끼지 않으려 하는 바이나, 다만 한 가지 우리들이 凝視하고 있는 바는 이들의 進步的 XX的 世界觀의 문제에 있는 것이다. 또한 李甲基, 權 煥, 朴英熙 等 諸氏의 許多한 文人들의 이제부터의 行動은 실로 無氣力하던 우리 文壇에 緊張性을 띄워올 것으로 믿어지는 바이니 林和, 安含光, 金斗鎔氏와 아울러 이 해(一九三六年)의 朝鮮文壇은 一九三十年代의 빛나는 傳統을 밟어 다시금 이 文壇에 價位的 進步를 내어드딜 것으로 믿어진다. 吾人은 그의 앞날을 注目하는 바이다.

(朴相義, 「日評」란, 1936. 2. 18)

1935년은 카프가 해산된 해이다.

<신건설> 사건으로 인해 1934년 5월부터 KAPF 제2차 검거가 시작되는데, KAPF 단원 李箕永, 宋影, 白鐵, 朴英熙 등이 검거되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남아있던 KAPF 단원인 林和, 金南天이 1935년에 해체원을 내고 해산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1924~5년 경부터 약 10년간에 걸쳐 한국현대문학의 패권을 쥐어오던 프로문학운동이 형식상 퇴각하게 된다. 그러나 1936년에 들어 2차 검거에서 석방된 KAPF 단원이 작품활동을 계속하게 되는데, 위의 短評 「긴장되는 최근의 문단」은 이들에 의해 전개될 1936년의 문단이 '1930년대의 빛나는 전통을 밟어 다시 價位的 武步를 내딧게' 되리라고 전장한 글이다.

朴相義는 여기에서 옛날 KAPF 단원이었던 작가, 비평가들을 進步的, 또는 熱意的 文人으로 평가하고, 이들의 近況만을 소개하며, 이들을 통

해 우리 문단의 새로운 발전을 기대한다. 또 KAPF가 해산된 1935년은 가장 囹圄한 해였던 것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편협될 만큼 KAPF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단평을 통해서, KAPF 해산 1년이 지난 1936년에도 우리 문단은 여전히 舊 KAPF 단원들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당시의 작품이나 비평 경향도 자연히 '사회주의적 리얼리즘' 경향을 띤 것이 많았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 「긴장되는 최근의 문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평 가운데는 당시 문단의 세태를 정확하게 제공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평은 정호가한 문학연구의 자료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는 비평이며, 당시 문단의 관례처럼 되어있던 총평, 월평, 時評의 역할까지 담당했던 비평이라고 할 수 있게 된다.

이상 작가론, 작품론, 문예이론, 문학용어 등의 측면에서 단평의 비평성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단평은 어느 비평들 못지 않게 정확한 이론전개 및 평가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평을 편수로 계산해 볼 때 문단세태에 관한 短評數에 비해 작가론, 작품론, 문학이론 등에 관한 단평수는 적다. 그러나 비평의 하나로서 短評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작품론, 작가론, 문예이론 등의 측면에서 정확한 평가를 보인 단평이 많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단평은 어느 일반적인 비평들 못지않게 날카로운 비평성을 구사한 비평이며, 나아가서 당시의 문학을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단평의 비평사적 意義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短評이 가지는 우리 비평사상의 意義를

다음 몇 가지 面에서 추출할 수 있겠다.

1) 비평으로서의 본질적 가치

비평의 本質的 측면에서 살펴 볼 때, 종래의 일반적 비평에 못지않은 비평성(criticality)을 정확하게 구사한 가치 있는 비평이라는 意義가 있다.

단평을 편수로 계산하여 볼 때는 작가론, 작품론, 문예이론에 관한 短評 수 보다 문단세태에 관한 수가 훨씬 많으므로 단평을 가치 없는 꼬십 또는 문단이면사 등으로 가볍게 취급해 버릴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단평의 本質로서의 비평성을 날카롭게 구사한 것이 많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평가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듯이, 단평은 짧고 압축하여 평가하였지만, 일반비평 못지않게 비평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한 작품들이 많았던 것이다.

다시 말해, 단평은 짧은 형식상의 제한 때문에, 세세한 분석과정을 표현할 수 없었지만, 대신 촌철살인의 警句로서 일반적인 비평이 지닌 비평성을 압축하여 전개했던 것이다.

이러한 단평이 가지는 本質的 意義는 작품론적 측면에서 그 정확성을 발휘하였던 점과, 작가론적 측면에서 작가의 창작의식이나 작품경향을 예리하게 압축적으로 분석하였던 사실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또 문예사조론적인 측면 또는 문학이론 측면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확한 이론전개를 보임으로써 비평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였던 사실에서도 살펴 볼 수 있었다. 당시는 일본문단의 무비판적인 수용으로 인한 문예사조 문학용어의 혼란이 난무하던 시대였으므로 당시의 문단에서 독자나 작가를 위한 비평의 제도적 기능이란 아주 필수적인 것이었는데, 단평은 이러한 의미에서도 매우 가치 있는 비평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短評을 피상적으로 살펴볼 때, 인상비평적인 느낌 -곧 구체적이고 정확한 증거의 제시과정이 없이 필자가 느낀 대강의 느낌만을 기술하고 비판한 것이 많다는 느낌- 을 주는 것은, 短評이 비평의 本質을 벗어난 데서 연유하는 것이 아니라, 評文의 길이제한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단평의 작가들 중에는 신문에서는 단평을 썼지만, 다른 지면을 통해서는 장편의 비평을 쓰고 있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短評은 짧은 지면에 압축 요약하여 비평하여야 하므로 비평과정에서 작품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해석'과정을 생략하고, 그 결과로서의 '감상' 또는 '판단'과정만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작가의 역량이라기보다는 (이것도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되지만) 제한된 지면의 제약이 더 가까운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비평으로서의 문학 외적 가치

문학外的인 측면에서 볼 때, 단평은 다음 몇 가지 비평사적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단평은 우리 비평사상 존재적 가치가 큰 비평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는 작품이나 비평의 발표지면이 극히 부족한 시대였고 따라서 신문 학예면이 가지는 가치는 상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데, 단평은 이러한 비평 및 문예의 요충지였던 당시 4개 신문의 학예면에 빠짐없이 등장하여, 5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하였던 만큼, 당시에 단평이 감당해야 할 비평으로서의 역할과 가치는 컸다고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속기간이 길었던 만큼 산출된 평론의 양도 상당하므로, 우리 비평사 연구에서 결코 제외될 수 없는 비평형식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둘째, 단평의 흐름을 개괄할 때, 우리 문예비평사로 정립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단평은 내용상 時評의 성격을 띠고, 작품론, 작가론, 문학이론 등 문단 전반에 관해 비평을 가하였으므로, 단평에서 보여지는

평가들을 종합한다면, 현대문학사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도 기여를 하리라 본다.

아래에 그 실례를 몇 개만 보이기로 한다.

㉠ 九人會에 관한 단평은 '알파'의 「九人會는 어디로?」[52]와 張桂春의 「九人會와 詩와 小說」[53]에 보인다.

㉡ 1935년에 문제가 되었던 기교주의론은 林和가 「曇天下의 詩壇一年」[54]에서 기교파가 대두된 경로를 설명한 이후, 1933년 <구인회> 이후의 신감각파적인 경향을 지닌 시인들에 대해 거론된 것인데 이 무렵인 1936. 2. 7일자 玄卿駿이 쓴 단평 「먼저 내용을!」[55]도 이와 관련된 것이다. 필자는 '작가는 훌륭한 내용9이데올로기), 때로는 훌륭한 형식(技巧)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고, '최근 형식기교(말재주)에 사로잡혀 예술의 본질을 망각한 사람이 많다.'고 비판하였다.

㉢ '행동주의'와 관련된 단평으로 「능동적 정신론」[56]을 들 수 있다. 이외에 '행동주의' 및 파리 '문화옹호 국제작가회의'에 대한 단평은 「파리 국제문화옹호연맹」(如水, 조선일보 「탐보대」, 1935. 8. 31), 「정열의 빈곤」(李鳳九, 조선중앙일보, 「일평」, 1936. 2. 9) 등이 있고, '휴머니즘 논의'에 대한 것은 「휴머니즘의 失踪」(如水子, 조선일보 「소형논단」, 1937. 3. 14) 등이 있다.

㉣ 1935년에서 40년대로 가는 과도기에서 舊世代의 문학세계와 1935년에 등단한 작가들간의 문학세계의 차이점을 표현하였던 '세대론'에 관한 단평은 「新人論」(남수흔, 동아일보 「탁목조」, 1938. 4. 12)과 「젊은 세대」(서인식, 동아일보「호초담」란, 1939. 5. 14), 「世代정신」(서인식, 조선일보 「봉수대」, 1939. 4. 15), 「세대와 작가」(최재서, 동아일보 「호초담」

52) 『동아일보』, 「정찰기」란, 1935. 3. 10.
53) 『조선중앙일보』, 「일평」란, 1936. 4. 7.
54) 『신동아』 50호, 1935. 12.
55) 『조선중앙일보』, 「일평」란
56) 오메가, 『동아일보』, 「정찰기」란, 1935. 3. 3.

란, 1939. 5. 12) 등이 있다.

㉤ 카프가 해체된 뒤에도 카프 문인들에게 동조하는 쪽의 활동을 엿볼 수 있다. <신건설> 사건으로 인한 KAPF의 제2차 검거(34년 5월~35년말, 임화, 김남천 피검)가 실시되자, 약 10년간 한국현대문학의 패권을 쥐어 온 프로문학운동은 형식상 끝나게 된다. 동아일보의 「정찰기」란에서 '오메가'는 카프의 해산이 '카프자체의 문제인 것보다 어 역사적의 제 規定의 一表現'이라고 하고, 그것은 '카프가 현실문제를 주체적으로 집어 올리기에 너무 弱體'였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57]

또, 「긴장되는 최근의 문단」[58]에서 朴相義는 '카프 해산의 해인 1935년은 조선문단에 있어 가장 불행하고 囹圄한 해였다'고 하고, 카프 문인들의 빛나는 전통을 밟아서 다시금 '조선문단의 價位的 武步'를 내딛을 것으로 바란다고 하였다.

㉥ 작가가 적극적으로 현실을 비판할 수 없어서, 소극적으로나마 그 시대의 부정한 면을 공격하는 것이 '풍자문학'이라면, 우리 문단에서는 1935년 이후 현실의 약화시기에 많이 나타난다. 김유정, 채만식의 소설들이 그것이다.

柏木兒[59]는 '풍자문학'은 단순한 한 개의 수법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一夕二朝에 되는 것이 아니고, 작품소재가 창작과정의 특수한 단계, 즉, '작가의 이성을 통과할 때'만 성립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조선문단의 '유우머소설', '센스소설'에는 진정한 의미의 '풍자소설'이 없다고 하였다.

㉦ 이즈음은 또 心理小說, 身邊小說, 世態小說 등이 많이 등장하였는데, 풍자문학과 마찬가지로 1935년 이후 악화된 현실을 잘 넘기기 위해, 작가들은 현실과 분리되어 내면의 추구나 개인생활의 주변에서 취재하는 경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개인생활의 주변에서 취재하는 신변소설(私小說)은 안희남의 <화원>(1937), <소년과 기생>(1937) 등이 대표

57) 오메가, 「카프의 해산」, 『동아일보』, 「정찰기」란, 1935. 6. 8.
58) 朴相義, 『조선중앙일보』, 「일평」란, 1936. 2. 18.
59) 「풍자문학」, 『조선일보』, 「연금기」란, 1937. 7. 22.

적인 예이다. 이러한 신변소설에 대해 '夢駒生'은 「身邊小說」[60]에서 '건전한 조건과 현실과의 타협 속에서 저속한 생활에 충실하랴는 人間의 身邊雜記'라고 비판하고, 여기에는 '문학인으로서 人間문제에 대한 사색이 부족하고, 고민의 참맛을 모르며 현실을 초극하려는 自意識이 없다'고 하였다.

ⓞ 1935년 1월 「조선일보」의 편집자가 「조선문학상의 복고思想 검토」라는 글에서 '새로운 문학을 탄생할 수 없는 불리한 상황에서 오히려 古典文化유산을 계승하여 특이성을 발휘하자'고 한뒤 여러차례 '고전문학과 복고사상'이 검토되며 歷史小說이 속출한다. 여기에 관해서는 동아일보, 「정찰기」란의「歷史小說의 속출」(알파, 1935. 2. 14), 「單章時調의 가능」(天外天, 1935. 3. 12), 「古典을 연구하라」(오메가, 1935. 7. 3), 「고전전승의 방법」(上·下) (오메가, 1935. 7.26~27) 등과 조선일보 「연금기」란의 「歷史小說」(蜀角生, 37. 9. 19)을 들 수 있다.

ㅈ 신문소설에 대한 안목을 엿볼 수 있다.

김말봉의 <밀림> (1935. 동아일보 연재) <찔레꽃>(1936. 조선일보 연재)이후에 저널리즘의 상업주의에 힘입어 '통곡소설'이 유행한다.

당시의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장편소설'이란 것은 신문의 연재소설이었고, 연재소설은 신문사의 요구에 의해 독자, 대중의 흥미를 참작하므로 '장편소설, 신문소설, 통속소설, 대중소설'이 거의 같이 받아들여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여기에 관해 '로갑'은 「新聞小說에 對한 것」[61]에서 '신문소설이라면 으례 얼빠진 연애타령이나 야담거리를 제공하는 것이고, 예술소설이 되다가 못 된것이 대중소설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작가는 독자를 끌어 올리라'고 촉구한다.

이 밖에도 여기에 관한 단평은 조선일보 「연금기」란에 많이 보이는데, 「신문소설론」(柏木兒, 37. 10. 20), 「장편소설고」(三色童, 37. 7. 17), 「장

60) 『조선일보』, 「연금기」란, 1937. 9. 29.
61) 『조선중앙일보』, 「일평」란, 1935. 10. 9.

편소설의 방향」(五星子, 37. 7. 29),「대중소설檀의 분화」(有言生, 37. 8. 14),「장편의 테마」(兩頭蛇, 37. 8. 21),「대중과 통속」(蜀角生, 37. 9. 1) 등이 있다.

셋째, 단평은 문학연구의 보조적 가치가 크다.

문학작품은 바른 이해와 바른 평가를 위해서 文學裏面事나, 文壇事에 관한 자료가 꼭 필요하다면 단평은 문학연구를 위한 보조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단평 가운데는 문단세태를 다룬 것이 많으므로, 이를 통해서 당시 문인의 근황이라든가, 문단의 동향과 제도, 주된 이론적 경향, 신문사, 잡지사, 출판사의 폐단 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관해서는 앞에서 단평의 문단세태에 관한 가치를 논하는 가운데, 일례를 보인 바 있다.

넷째, 단평은 날카로운 비평성을 구사한 몇몇 전문적 短評筆者를 배출한 의의를 가진다.

단평이 수많은 筆者에 의해 쓰여졌다고 하더라도, 단평란을 살펴보면, 각 단평란을 주도했던 전문적 필자[62] 를 볼 수 있다.「정찰기」란의 알파, 빼타, 오메가, 갑돌이, 순돌이,「탁목조」란의 雙頭馬車,「호초담」란의 김남천,「탐보대」란의 一步生, 如水,「소형논단」의 如水子,「연금기」와「고기도」란의 柏木兒, 巴朋生, 五星子, 石耕牛, 蜀角生, 鐵木塔 등과「필탄」의 X.Y.Z, K.H.(生),「일평」의 로갑(朴魯甲), 복진(金復鎭), 천명(盧天命) 張北影(北影生) 등은 전문적이고 수준급의 단평필자로 들 수 있다.

3) 비평으로서의 기능적 가치

비평의 기능면에서 볼 때, 단평은 독자와 전문지식인 간의 거리를 좁히고 융화시킨 의의와 당시 위기의 문단에서 훌륭한 문단지침 역할을

62) 本考에서 말하는 '전문적 필자'란 뜻은 단지 단평의 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면에 있어서나, 단평 본래의 목적인 입체적 묘사, 또는 날카로운 비평성(criticality)을 가진 단평을 쓴 필자를 의미한다.

한 意義를 가진다.

T. S Eliot의 말처럼, 단평의 기능으로 '예술작품의 해명' 외에, '작가의 취미를 바로 잡고 지도하는 것', '문학의 이해와 享受를 조장시키는 일'을 들 때, 단평은 이러한 啓導的 기능을 충분히 수행한 비평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단평은 독자의 문학에 대한 이해, 享受를 조장시킴으로써, 독자와 전문비평가, 작가와의 거리를 좁히고 융화시키는 기능을 다했다고 평가할 수 있고 동시에, 작가의 취미를 바로 잡고, 지도함으로써, 당시의 문단 위기를 헤쳐 나가는데 훌륭한 지침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본래 단평은 저널리즘을 기반으로 형성되었으므로, 독자로서의 일반대중이 지향하는 바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또 당시의 독자들은 프로비평 등 종래의 학구적이고 장편이었던 비평이 가졌던 논쟁성에 염증을 내고 있었으므로, 短評은 이러한 독자들의 관심을 어느 정도 반영하여 전문지식인(작가, 비평가)과의 거리를 융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단평이 문단 전체에 걸쳐 훌륭한 지침 역할을 수행했던 것은, 단평이 時評的 性格을 가짐으로써, 문단제반의 문제에 대해 비판을 가했던 사실과 관련되며, 또 저급하며 불안한 것으로 파악되던 당시 문단에 대해 문단인이 항거하고 문단에 진출하려는 목적에서 단평이 시도되었다는 사실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평이 우리 批評史上 중대한 가치를 가졌다는 사실은 누차 업급한 바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양의 단평이 산출되었기 때문에 뒤로 올수록 단평은 본래의 기능 및 목적에서 벗어나 경조한 느낌을 주기도 했다.[63]

63) 단평의 한계점을 지적한다면 다음과 같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살핀 결과를 바탕으로, 단평의 비평사적 가치를 살펴 볼 때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첫째, 단평은 문예시평처럼, 당시 문단의 체질적 성격이 탄생시킨 평론에 가까운 비평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단평도 일반대중을 위한 비평, 저널리스트가 쓴 時事性을 띤 오늘날의 비평으로서, 내용상 문예時評의 성격을 계승하였기 때문이다. 또 비평과 평론의 구별이 불가능하였던 당시의 전문적인 단평필자들은 전문비평을 쓴다는 의식을 가지고 단평을 집필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단평의 評文구조를 살펴 볼 때, 텍스트(text)의 구체적 해석 과정은 나타나지 않고 판단 또는 감상 및 평가의 과정만이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단평이 짧은 길이의 제한을 받는 데서 온 것으로 보인다. 또 단평의 비평으로서의 본질적인 자질, 곧 비평성(criticality)을 작품론적 측면, 작가론적 측면, 문예사조론적 측면, 문학이론적 측면 등에서 분석해 볼 때, 단평은 어느 일반적 비평들 못지않게 정확한 평가와 이론 전개를 보임으로써, 비평성을 충분히 발휘한 가치있는 비평이며, 나아가서 당시의 문학을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는 비평임을 알 수 있다.

셋째, 단평이 가지는 우리 비평사상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추출할 수 있겠다.

①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단평은 작품론, 작가론, 문학이론, 등의 측면에서 정확한 평가와 이론 전개를 보였던 가치있는 비평이다.

---

① 비전문성을 보이는 단평의 수가 훨씬 많으므로 자칫 雜文으로 착각될 우려가 있었다.

② 익명이 초래되는 궁금증과 문제점 때문에 論戰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낳았다.

③ 종래의 비평이 지니던 논쟁성을 탈피하려던 처음 목적과는 달리 논쟁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② 문학 外的인 측면에서 볼 때, 단평은 우리 批評史上 존재가치가 큰 비평형식이다. 또 흐름을 개괄하면 우리 문예비평史로 정립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며, 現代文學史의 흐름 파악에도 기여하리라 본다. 문학작품의 바른 이해와 평가를 위해서 문학裏面事나 文壇事에 관한 자료가 꼭 필요하다고 할 때, 단평은 문학연구를 위한 보조적 자료로서 가치가 큰 비평이다. 또, 날카로운 비평성을 구사한 몇몇 전문적인 단평 필자를 배출한 비평이다.

③ 비평의 기능면에서 볼 때, 단평도 독자와 전문지식인 간의 거리를 좁히고 융화시킨 의의와 당시 위기의 문단에서 훌륭한 지침 역할을 수행한 의의를 가진다.

이상에서 고찰한 결과, 단평은 짧은 길이에서 오는 선입견으로 지금까지는 도외시되어 왔고 본격비평에 비해 낮은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긴 시간동안 많은 양의 단평작품을 산출한 비평이고, 문학사적 의의와 가치가 충분한 비평장르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처럼 본고는 과연 단평은 비평으로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문학이었던가를 따져 한국근대문학비평사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러할 때만 식민지 상황하의 우리 문학에 대한 바른 이해와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추후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단평의 범주, 유행원인과 시대적 역할, 문헌적 양상 및 중요 단평들의 개별연구 등, 단평의 비평문학으로서의 본질적 가치를 밝히는 심도 있는 연구를 계속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동아일보』단평란: 「偵察機」, 「落書評論」, 「四百字評論」, 「啄木鳥」, 「胡椒譚」, (1935.1.1～1939.6.30)

:『동아일보 마이크로 필름』(서울 동아일보 조사부刊: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동아일보 색인』권6 (「偵察機」목록) 1065쪽

『조선일보』단평란: 「探報隊(台); (探照燈)」,「藝苑포스트」, 「小型論壇」, 「鍊金機」, 「고기도(Cogito)」, 「小型月評」, 「烽燧台」, 「斬馬錄」, 「火曜評論」, (1935.2.8～1940.5.7)

:『影印 朝鮮日報(학예면)抄』권4,5,6 (1934.7～1937.6)

:『조선일보(학예면)』(1937.7～1940.8): 한국학자료원刊, 1985

『조선중앙일보』단평란: 「筆彈」, 「미네르바-의 小銃」, 「日評」(1935.5.31～1936.4.24)

:『조선중앙일보(학예면)』, (권 3, 4, 5), (1934.12～1936.9)

『매일신보』단평란: 「納凉台」, 「閑是非」, 「演藝週題」, 「前哨兵」, (1935.8.6～1940.10.19)

문예종합지의 단평란(1935～1939)

『新東亞』: 「문단팔면경」,「잠수정」(48. 49. 50호),「시사단평」(40. 48. 49. 50호).

『文學』: 「雙眼鏡」

『人文評論』: 「求理知喝」

『西海公論』: 「文壇三行論」

『詩學』: 「메가폰」,「直言版」,「寸語集」,「頂針」

『批判』: 「문단시시비비론」(66호), 「문단폭격기」(66호), 「文壇寸針」

『청색지』: 1. 5. 6호
권영민, 『한국현대문학비평사(자료목록)』, 서울: 단대출판부, 1981.
일본신문 단평란: 「豆戰盤」(『東朝新聞』), 「壁新聞」(『讀賣新聞』), 「大波小波」(『都新聞』)

2. 논저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서울: 일지사, 1980.
포올, 헤르나디 편저, 최상규 譯, 『비평이란 무엇인가』, 정음사, 1984.
朴木月 外, 4일 共著, 『신고문학개론』, 송원문화사, 1974.
정태용, 「문학평론」 『문학개론』, 어문각, 1962, 204-249쪽.
A.Thibaudet, 石川 湧 譯, 『Physiologie de la Critique』, 春秋社, 1930.
武田勝彦, 川端香男里 감수, 『基本文藝用語辭典』, 일본: 荒竹出版, 1980.
T. S. Eliot, 최종수 역, 『문예비평론』, 박영사, 1974.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81.
白鐵, 『新文學思潮史』, 新丘文化社, 1982.
이광수, 「文學이란 何오」, 『매일신보』, 1916. 11. 30~11. 23.
_____, 「우리 文藝의 方向」, 『조선문단』 13호, 1926년 11월
_____, 「余의 作家的 態度」, 『東光』 20호, 1931년 4월
유종호, 「어느 半文學的 肖像」, 『문학춘추』 1권 8호, 1964.
전광용, 「李光洙 硏究序說」, 『李光洙 硏究』(上), 太學社, 1984.
송욱, 「日帝下의 한국 휴머니즘 비판- 이광수 作 「흙」의 의미와 무의미-, 『文學評傳』, 일조각, 1980.
閔丙徽, 「춘원의 <흙>과 民村의 <고향>- 농민소설로서의 대조-」, 『조선문단』 통권 23호, 1935. 4.
홍효민, 「행동주의 문학운동의 검토- 附 행동주의 문학의 조선적 가능」, 『조선문단』, 1935년 8월호.
김문집, 「동경문단의 근모- 행동주의를 중심삼아」, 『조선일보』, 1936. 1.

4.~1. 8.
韓植, 「新聞小說의 再檢討- 作家에 대한 要望과 批評家의 態度」, 『조선일보』, 1937. 10. 28~10. 31.
이해년, 「1930년대 후기 신문 短評란의 유행과 문헌적 양상」, 『한국문학논총』, 제60집, 한국문학회, 2012. 4, 285-321쪽.

3. 단평 자료

쌍두마차, 「論評·理論·批評」, 『동아일보』, 「탁목조」란, 1938. 3. 13.
一步生, 「不振한 文藝批評」, 『조선일보』, 「探報台」란, 1935. 5. 9.
如水子, 「휴- 마니즘의 失踪」, 『조선중앙일보』, 「小型論壇」란, 1937. 3. 14
李源朝, 「<鼠火> 新刊評」, 『조선일보』, 「練金機」란, 1937. 8.17
金北原, 「小說 <흙>에 나타난 春園의 意識」, 『조선중앙일보』, 「日評」란, 1936. 2. 21.
李鳳九, 「情熱의 貧困」, 『조선중앙일보』, 「日評」란, 1936. 2. 9.
노천명, 「擬製左翼」, 『조선중앙일보』, 「日評」란, 1935. 10. 23.
如水, 「巴文里化의 國際文化擁護聯盟」, 『조선일보』, 「탐보대」란, 1935. 8. 31.
有言生, 「대중소설檀의 分化」, 『조선일보』, 「鍊金機」란, 1937. 8. 4.
三色童, 「長篇小說考」, 『조선일보』, 「鍊金機」란, 1937. 7. 17.
박로갑, 「新聞小說에 對한 것」, 『조선중앙일보』, 「日評」란, 1935. 10. 9.
알파, 「九人會는 어디로?,」 『동아일보』 「정찰기」란, 1935. 3. 10.
張桂春, 「九人會와 詩와 小說」, 『조선중앙일보』, 「일평」란, 1936. 4. 7.
林和, 「曇天下의 詩壇一年」, 『신동아』 50호, 1935. 12.
玄卿駿, 「먼저 내용을!」, 『조선중앙일보』, 「日評」란, 1936. 2. 7.
오메가, 「능동적 정신론」, 『동아일보』, 「정찰기」란, 1935. 3. 3.
如水, 「파리 국제문화옹호연맹」, 『조선일보』, 「탐보대」란, 1935. 8. 31
李鳳九, 「정열의 빈곤」, 『조선중앙일보』, 「일평」란, 1936. 2. 9.

如水子, 「휴머니즘의 失踪」, 『조선일보』, 「소형논단」란, 1937. 3. 14.
남수흔, 「新人論」, 『동아일보』, 「탁목조」, 1938. 4. 12.
서인식, 「젊은 세대」, 『동아일보』, 「호초담」란, 1939. 5. 14.
_____, 「世代정신」, 『조선일보』, 「봉수대」, 1939. 4. 15.
최재서, 「세대와 작가」, 『동아일보』, 「호초담」란, 1939. 5. 12
오메가, 「카프의 해산」, 『동아일보』, 「정찰기」란, 1935. 6. 8.
朴相義, 「긴장되는 최근의 문단」, 『조선중앙일보』, 「日評」란, 1936. 2. 18.
柏木兒 「풍자문학」, 『조선일보』, 「연금기」란, 1937. 7. 22.
夢駒生, 「身邊小說」, 『조선일보』, 「연금기」란, 1937. 9. 29.
알파, 「歷史小說의 속출」, 『동아일보』, 「정찰기」란, 1935. 2. 14.
天外天, 「單章時調의 가능」, 『동아일보』, 「정찰기」란, 1935. 3. 12.
오메가, 「古典을 연구하라」, 『동아일보』, 「정찰기」란, 1935. 7. 3.
_____, 「고전 전승의 방법」(上·下), 『동아일보』, 「정찰기」란, 1935. 7. 26~27.
蜀角生, 「歷史小說」, 『조선일보』, 「연금기」란, 1937. 9. 19.
윤고종, 「문예시평(2) '단평의 존재의의'- 시대는 간명을 요구한다」, 『조선일보』, 1935. 3. 9.
정순정, 「寸鐵評 비판-효능성의 二方面」, 『조선중앙일보』, 1935.10.15~16.
김복진, 「대체 누구냐」, 『조선중앙일보』, 「일평」란, 1935. 9. 27.
_____, 「계몽과 농담」, 『조선중앙일보』, 「일평」란, 1935. 10. 3.
노천명, 「匿名批評의 流行에 對하야」, 『조선중앙일보』, 「일평」란, 1935. 10. 16.
P.W., 『조선중앙일보』 「필탄」란, 1935. 5. 31.
「정찰기의 출발에 際하야」, 『조선중앙일보』, 「정찰기」란, 1935. 1.1.
알파, 빼타, 오메가, 「정찰기의 再出發」, 『동아일보』, 「정찰기」란, 1935. 5. 28.

_____, 「익명비평에 대한 無用의 호기심」, 『동아일보』, 「정찰기」란, 1935. 9. 29
쌍두마차, 「익명비평의 辨」, 『동아일보』, 「탁목조」란, 1938. 3. 4.
동유자, 「匿名비평의 위신」, 『매일신보』, 「전초병」란, 1940. 9. 27.

<Abstract>

A Study on the Significance of 'Danpyung' (Short Reviews) in Journals in the Late 1930s on the History of Korean Criticism

Lee, Hae-Ny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Danpyung' (short reviews) put in the journal literary columns from 1935 to 1940, as a link of the study on the history of Korean modern literary criticism.

The authors of 'Danpyung' are mostly journalists, who are also novelists and critics having an effect on the literary world at that time. Therefore, 'Danpyung' has a great possibility of possessing the literariness(or criticality) and literary historical value.

In this paper, 'Danpyung' is studied on the valuation in the history of literary criticism.

As a result, the Value of 'Danpyung' in the History of Literary Criticism is as follows:

1. Like 'comments on current literature', 'Danpyung' is a form of criticism similar to an essay, originated from the constitutional feature in the literary world of those days.

2. In consideration of the criticality as one of essential elements of criticism, 'Danpyung' is a valuable criticism with the correct estimate and theory in the aspects of essays on works, authors, the currents of literary thoughts, the theory of literature and etc.

* Dongseo University.

3. The significance of ‘Danpyung’ in the history of criticism is as follows :

First, ‘Danpyung’ is very worthy to be considered in the history of criticism, because it exists in the Journal literary columns for a long time and the number of it is considerable.

Second, ‘Danpyung’ is helpful to the grasp of the currents in the history of modern literature. It is also valuable as an assistant material for the correct estimate and understanding of literary works.

Third, ‘Danpyung’ has the significance in making familiar the relation between popular readers and literary specialists and making both harmonious. In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recovering the literary world in crisis at that time.

Key Words : ‘Danpyung’ (short reviews), journal literary columns, criticality, history of literary criticism, significance of ‘Danpyung’, form of criticism, theory of literature, popular readers, literary specialists

▌논문접수 : 2019년 10월 30일
▌심사완료 : 2019년 12월 8일
▌게재확정 : 2019년 12월 10일